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으로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다. 전에도 높은 공직에 있던 분들이 이와 비슷한 일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모양이다. 대개의 성희롱·성차별 발언의 남성들이 그렇듯, 이들 대부분은 능력이 모자란 때문이 아니다. 능력이 발달한 사람이 오히려 그런 '농담'을 더 즐긴지 모른다.

이상하게도 권력을 지녔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는 그런 저질성의 발언은 교묘한 농담으로 또는 솔직한 태도의 한담 속에 직선적으로 또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곤 한다. 당사자는 으레 자신의 말은 솔직한 성격의 면모를 드러낸 것으로 보거나 '마초' (남성다움을 과장 또는 경박스럽게 보여주는 남자)같은 기질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에게는 특별히 다른 인격적 결함 같은 게 발견되지 않는다. 대인관계나 공적인 일에서는 오히려 유능하고 창의적인 면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다. 허나 다른 사람과 그 차이가 있다면 여성성에 대한 몇 가지 태도가 문제일 것이다.

먼저, 남자들이란 사회생활에서 공격적·적극적 태도를 권장되어야 할 덕목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그 자체에 잘못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여자는 수동적·의존적인 처지에 길들여져



불자 세상보기

신승철

시인·정신과전문의

성희롱 가해자의 심리 배경

있는 존재로 본다. 성 역할에 대해 보다 경직된, 폐쇄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 문제다. 여기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유형의 역할 모델을 학습해온 탓도 있다. 개인의 가족사에서 특히 성 역할 모델이 경직된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도 적지 않은 것이다. 해서 남성은 강한 지배질이나 출세 또는 파워게인에 익숙해지는 습관이 배어 있다. 성장과정에서 성 역할 개념에 대한 변화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청년기를 거치면서 여성성이나 남녀 성에 대한 차별 없는 이해를 진지하게 탐구할 경험이나 여력이 없었다.

사실 성에 대한 태도는 권력에의 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권력의지는 남성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관련이 없다. 아무런 사회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런 의지가 강한 자는 생각 없이 성차별이나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요한 권력 추구형(혹은 출세지향)의 사람일수록 대체로 매우 이기적이고, 주위 사람을 이용하려는 성향이 높다. 해서 팔과 행동에서도 그 차이를 자주 내보이곤 한다. 대하나 인간관계가 일방적인 편이다. 당연히 여성성에 대한 여러 경직된 태도도 드러난다.

일부 성희롱 자들은 성적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에 못 이겨, 말하자면 성 욕구 배설의 억압이 강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아

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보다는 가해자들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모욕이나 수치심을 안겨주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있다. 여자를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공격적 지배욕이 남달리 강하다. 평소에도 여성의 육체에 대한 소유 개념이 다분하다. 때문에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들이 곧잘 느끼게 되는 무력감·수치심·분노·모욕감 같은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피해자 여성 대부분은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에 있을 거라 보고 자신의 파워는 우월한 위치에 있을 거라 가정하기도 한다.

여성의 심리나 언어·행동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도 다반사다. 여성성을 무시하려는 무의식적 습성 때문에 가학적 성격의 성적 발언이나 '농담'이 여성들에게 은근히 자연스럽게 또는 당당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 믿는 것이다. 이런 '마초' 류의 남자들은 서로 어울려 이런 행동을 더 강화하고 정당화하곤 한다. 하나의 고집화된 습성 탓에 단기간에 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자신의 오만한 태도 일반에 대한 내적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인이라면 무슨 발언이든 그것의 공공적 성격이 크고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자각을 해야 한다. 남자답다는 소리보다는 품위 있게 살며, 인간답게 행동한다는 소리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사설

장학기금 확보와 활동 공간

조계종 장학위원회가 출범했다. 승가 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인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7월 26일 11명의 스님을 장학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서 자승스님은 "각자의 인연 따라 개별적으로 전달받던 장학금을 종단이 나서 장기적·체계적으로 보다 많은 학인스님들에게 지원해주는 뜻에서 장학사업을 확대했다. 불교의 미래를 키울 인재들을 밝게 선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원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단 소속의 스님 가운데 외국의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 중에 있는 스님이 600여 명이다. 1만2천여의 조계종 스님 중에서 이 숫자는 적지 않다. 5%에 이르는 비율이다.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등 종합 학교를 포함한 국내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스님들까지 합치면 그 비율은 훨씬 높을 것이다.

장학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학업 중

인 여러 스님들에게 종단 장학금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양성에 종단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니 기쁜 마음이 반갑기만 하다. 장학금 지원 인원을 늘려나가야 하려면 기금의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소수의 인원에 한정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계종단이 지닌 큰 위상에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불교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도 그만큼 더뎠다.

기금 조성고 함께 애중심이 넘쳐나고 유능한 스님들이 활동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인재가 없어서 문제라는 인식은 절반만 옳다. 세상의 요구와 불음에 담고 널리 증생할 길을 개기 위한 종단의 조건, 즉 다양한 기구와 활동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 연후야 '적재적소'라는 말이 성립된다.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 100년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이 출간된 해는 1913년이다. 그보다 세 해 앞서 원고를 집필을 완료했으니, 올해가 <조선불교유신론>이라는 낯 음을 울린 지 100년이다.

만해 스님은 백담사에서 유신론을 '닭의 울음'이라고 하며 펜을 놓았는데,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영탄조로 표현했다. "아, 슬프다. 비린내 나는 바람과 빗방울의 비가 어지러이 쏟아지고, ...바야흐로 밤이 깊네 내게는 잠이 안 오고, 생각이 참으로 길어지니 도리어 고개 드는 사람! 시름은 끝없이 한숨과 노래 뒤섞이노니, 아우어 형이여, 유학생,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재 광활한 만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활동은 스리랑카, 네팔 현지 언론에 수차례 크게 소개되었고, 지난 6월 스리랑카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진각종 혜정 통리원장이 앞으로의 양국 간의 불교, 문화교류에 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눈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세계 각국과의 인적교류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장차 한국에 호의적인 자국민들에게 선한자의 위치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도울 뿐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관계형성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포교주체 측에 호의적으로 반응하여 포교의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핵은 불가피한 과정이다. 하고 말고 할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에게 맞는 불교의 운영 방법을 찾아내고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나아가 사회에 회향하기 위해서도 늘 변화해야 한다. 우리 불교사에서 백년결과·정혜결과 등 근원으로서의 복원과 혁신을 위한 움직임은 간단없이 있어왔다.

마침 '불교유신론' 집필 100년이다. 만해 스님은 이 책에서 유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 불교는 유신할 것이 없는 탓일까, 아니면 유신할만한 것이 못되는 까닭일까"고 탄탄했다. 이 한탄이 어찌 만해뿐이었으며, 100년 전의 과거이겠는가. 불교 개혁의 논의와 실천이 활발할 기 기대한다.

해외포교는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형의 교류이면서 문화의 흐름이다. 포교에 있어서 문화의 문제는 포교주체가 자신의 문화를 떠나 타 문화권에 들어갈 때 그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포교의 질과 영향과 의미 모두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타문화와의 만남인 해외포교에서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포교주체가 스스로의 문화와 세계관을 이해하는 동시에 전해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만 한다.

따라서 해외포교의 전략개발과 실질적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포교의 문화적 경향과 특성들이 비중을 갖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해외포교 현장에서 도출된 현상적인 문제점들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실 인간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 중 많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는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自文化 中心主義, ethnocentrism)>이다. 이는 단지 자신의 문화에 우월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른 문화 사람에게 강요하는 태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성찰이나 비판 없이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나 자신의 문화의 여러 특질들의 존재에 대해 무관심 하는 것도 포함된다.

불자의 입장에서 해외포교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을 논하면서 2007년 이맘때에 분



사부대중 칼럼

수각 정사

대한불교진각종 성전심인당 주교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해외포교의 문화적 접근

당의 샘물교회 소속의 목사와 평신도를 포함한 23명의 단기선교 일행이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되어 그 중 두 명이 살해되는 사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과정과 사대 이후 수습과정을 보면서 상대국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행해지는 모든 종교활동이 초래하는 최악의 상황을 간접 경험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들이 범한 잘못과 오류는 어디까지이며, 앞으로 분쟁 지역을 포함한 해외포교의 흐름에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해외포교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문화차이의 영역은 바로 국가와 국가 간, 종교 대상 민족의 고유문화와 한국인으로서 포

교주체의 문화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다. 특히 경제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민감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실제 포교주체가 가장 혼동하기 쉽고 유혹과 오류에 빠지기 쉬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양 주체간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상대방을 대하거나 그들의 생활을 접했을 때 갖게 되는 심리적 우월감과 그로 인한 충돌이다. 현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포교대상국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후진한 나라들임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경우에서든 늘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언어와 생활양식의 문제도 당연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화차이의 영역이다.

해외포교와 국제교류를 단지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고 보자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일에는 우선순

위가 있다. 국제교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부터 집중하는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수행전통과 신행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진각종이 운영하는 스리랑카와 네팔의 JGO지부에서 선발한 두 명의 외국인 포교사의 경우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라고 할 것이다. 2003년부터 7년간의 위덕대 학업기간동안 한국문화와 진각종의 신행철학을 몸으로 체득한 두 사람은 한국에 체류 중인 스리랑카, 네팔 등지에서 온 노동자, 유학생,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재 광활한 만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활동은 스리랑카, 네팔 현지 언론에 수차례 크게 소개되었고, 지난 6월 스리랑카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진각종 혜정 통리원장이 앞으로의 양국 간의 불교, 문화교류에 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눈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세계 각국과의 인적교류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장차 한국에 호의적인 자국민들에게 선한자의 위치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도울 뿐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관계형성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포교주체 측에 호의적으로 반응하여 포교의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사총괄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토크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쇼킹툰 엔터테인먼트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	--	--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락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천축, 연속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풀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분묘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사단법인 대승불교조계종 제 적 공 고

- 월봉 (연구인)
- 종옥 (이홍규)
- 고봉 (박영열)
- 무공 (김관희)
- 지운 (최동규)
- 계수 (박양업)
- 정덕 (박찰례)
- 원만 (김숙희)
- 지은 (정영순)
- 혜근 (김금자)
- 한정희
- 박순희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산 72-1 효자암
-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167-2 승학사
-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산35 대광사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50-1 천문사
- 경남 사천시 백천동 112 백천사
- 부산시 진구 가여동 386-67. 여영정사
-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411-17 금지암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421 장엄사
- 부산시 사하구 괴정4동568-31 보국사
- 경남 창원군 이방면 장천리 246 성불사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원리 676-4 대성사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 1162-20 정토사

상기자들은 본 종단에 해중행위를 하여 본 종단 징계위원회에서 제적 판결되었으므로 이에 승적제적 및 사찰등록을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4(2010)년 7월 27일

■ 부산시 동구 초량2동 448-6 동신빌딩 302호 / 총무원 전화 051)527-7733

社團 大乘佛教 曹溪宗 總務院長 閑坡